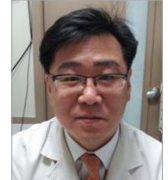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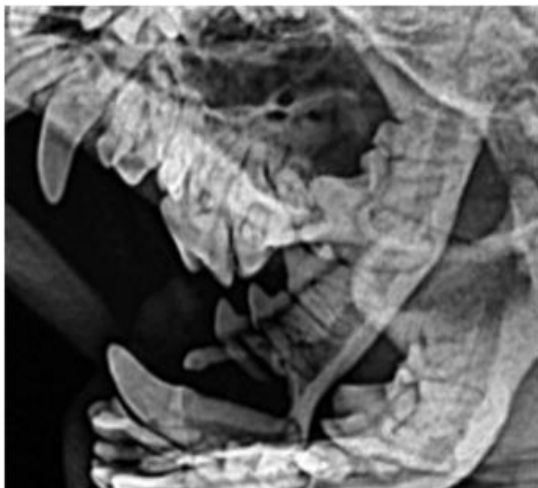
# 이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

## 6회 - 매복치, 매립치, 반매복치, 미맹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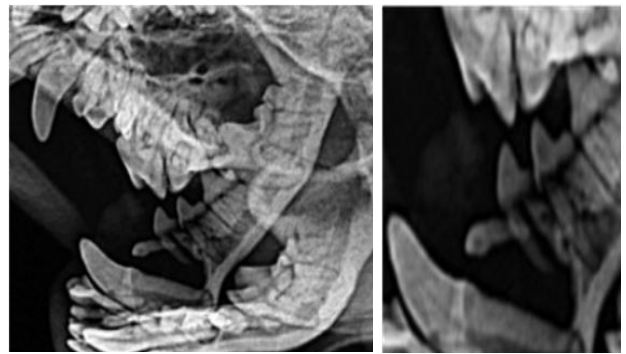


**이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Q.** 2년령 시츄 중성화 슷컷입니다. 2달 전에 아랫턱에 mass가 생겨서 내원을 했는데 FNA를 하려고 뽑아 보니 체액같은 삼출액이 뿜혀 나오고 덩어리가 작아 지더군요. 그래서 사진(아래 사진)을 찍어보니 그 mass 부위에 치조골 결손이 있어서 대중처치를 하였고, 1주일후 재내원시 이상이 없어서 치료를 끝냈는데, 2달이 지난후 내원하였는데, 결손 부위라고 해야 할지, mass 부위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mass를 잡고 흔들어 보면 뼈가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납니다. 아무래도 치조골 결손과 연관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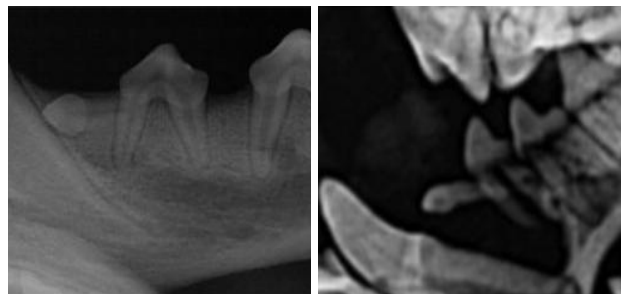
**A.** 보통은 아래턱이 부어서 내원을 하였다면, 침샘이상을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방사선 사진을 보면은 방사선상 #405(우측 하악 1번째 작은 어금니)의 치아의 모양이 이상하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의 우측 사진은 좌측 사진을 확대한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죠....

선생님의 방사선 사진을 보면 #405(우측 하악 1번째 작은 어금니)의 모양이 옆으로 누워있는것을 볼수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두 사진다 송곳니 다음의 치아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치아가 맹출을 못해서 구강에서 볼때는 마치 치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반매복치, 매복치, 매몰치, 미맹출치 4가지 타입으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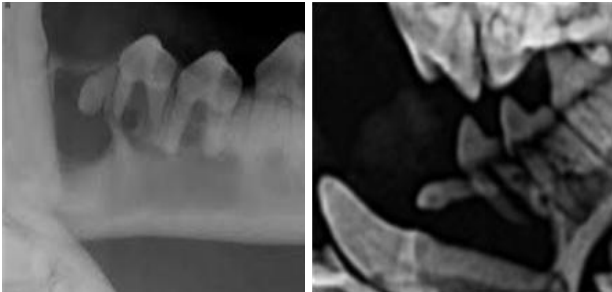


치아가 옆으로 누워 있고, 맹출이 안됨

질문한 선생님 사진

위의 사진을 보면 2개의 방사선 사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맹출이 안된 방사선 사진의 음영만 다르다는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질문하신 선생님의 방사선 사진과 똑같습니다. 2개의 방사선 사진이 똑같이 치아가 누워있고, 맹출이 안된 데다가 음영까지 검정색이어서 치조골의 결손같이 보입니다.



매몰치에 의해 치성낭이 형성된 사진

질문하신선생님 방사선

답은 Embedded teeth 에 의한 Odontogenic cyst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사랑이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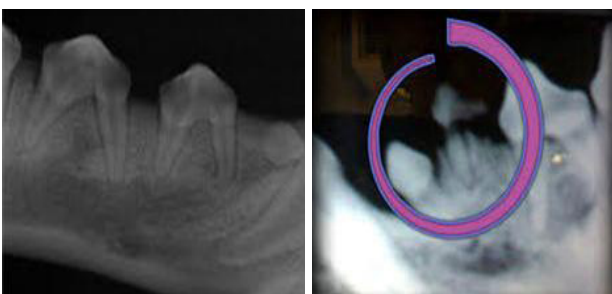
사랑이가 안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붓고 아퍼서 치과에 가서 치과방선사진 찍으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사랑이 발치하면 안아픕니다. 이케이스도 결국은 발치하면 됩니다.

그럼 위의 용어중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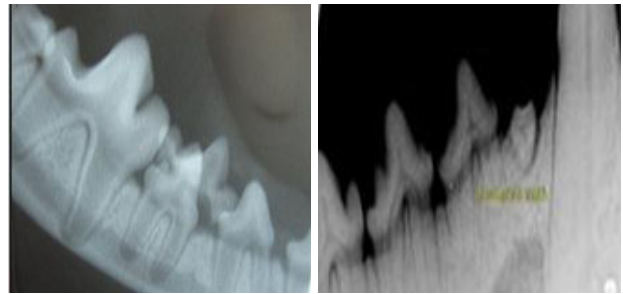
### 1. 매몰치, 매복치, 반매복치, 미맹출치

- 매몰치(Embedded teeth) - 다른치아에 의해 폐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맹출하지 못한치아
- 매복치 (Impacted teeth) - 다른치아에 의한 폐쇄때문에 맹출하지 못한치아
- 반매복치(Under-erupted teeth) - 치아가 치은을 뚫을 정도로 맹출되었으나 치관의 대부분이 치은에 존재
- 미맹출치(Unerupted teeth) - 치은연하에 존재하나 점막을 못 뚫은 치아



매몰치-다른이의 폐쇄가 없음

매복치-다른치아에 의한 폐쇄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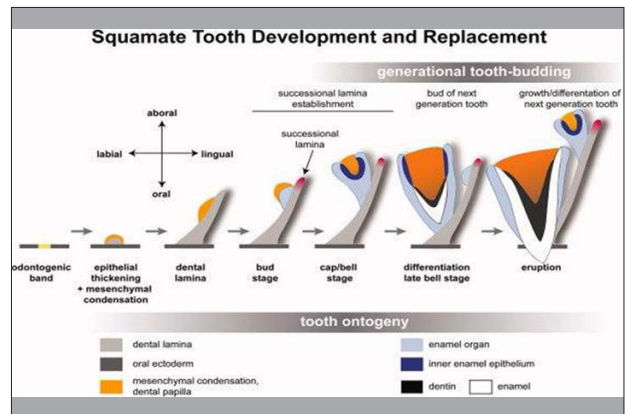
반매복치 -치은은 뚫었으나 치관 대부분이 치은에 존재

미맹출치- 치은연하에 존재하나 점막을 못 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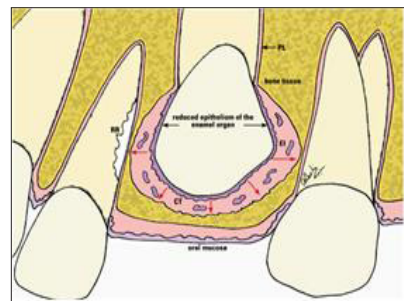
### 2. Odontogenic cyst(치성낭)

cyst란 원래 치아가 발생할 때 CEJ부분에서 에날멜질을 cyst로 둘러 싸고, 맹출이 된다음 cyst가 없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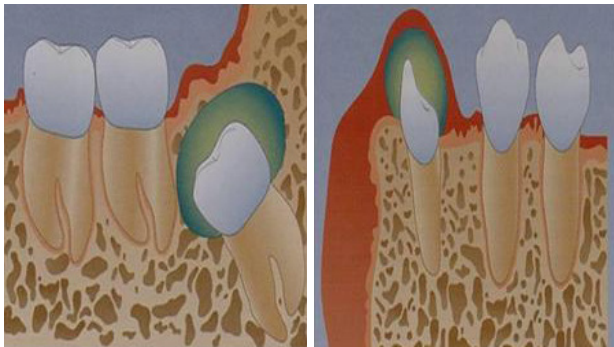
(아래사진 참조.cyst부분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각색한것이니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즉 맹출하지 못하고 치조골내에 있을때는 치아는 cyst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이cyst가 맹출을 못하면 아래와 같이 cyst에 둘러쌓인채로 존재합니다.



Dentigerous Cyst

Eruption Cyst



치근단 농양에 의한 염증

치주염에 의한 bone loss

즉 cyst가 문제가 되는것인데, Dentigerous Cyst란 치조골 속에 존재하므로 매몰치, 매복치에서 생길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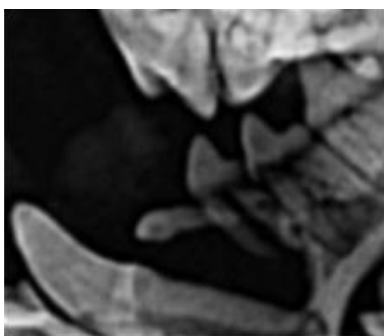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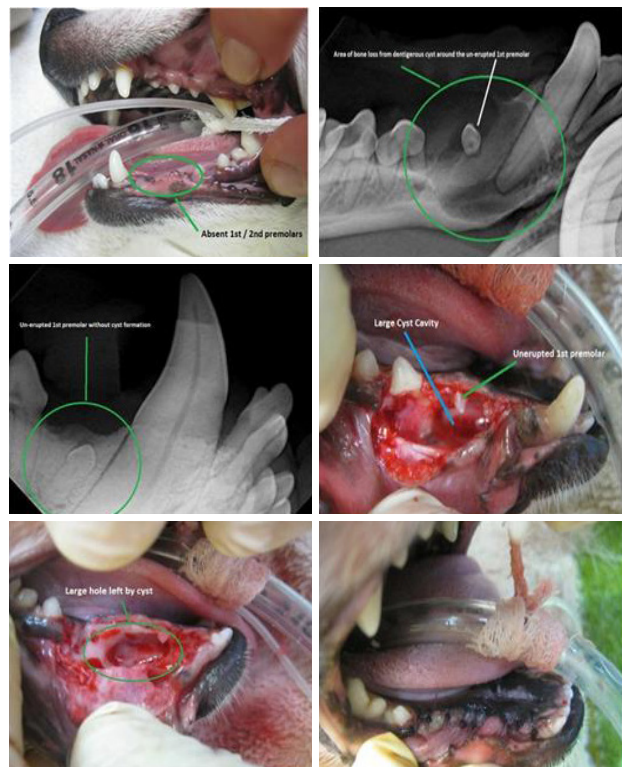
Eruption Cyst는 치조골을 뚫은 치아이니 반 매복치에서 생길것입니다.

치료법은, 매몰치, 매복치는 꼭 발치를 하여야하는 것이 Dentigerous Cyst를 형성하여 질문하신 선생님처럼 문제가 생길수 있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Dentigerous tumour까지 초래할수있으므로 꼭 발치를 하여야합니다.

반매복치는 Eruption Cyst를 형성하나 이것은 큰문제는 안되나 치관이 완전히 맹출이 안되어서 치관주위에 이물이 끼어서 치관주위염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질문하신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걱정하시는것 #405(오른쪽 하악 1번째 어금니)밑의 음영이 검정색이라서 치조골이 녹아내린것 아닌가 걱정하신것 아래 사진보면 #405(오른쪽 하악 1번째 어금니)밑의 음영이 검정색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술한 사진입니다.



Bone loss와 Inflammation의 방사선상 차이

아래 사진을 보면 염증방사선과 bone loss의 방사선이 명확히 다른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실제로 숨어있는 치아와 cyst를 제거하니 빈 공간이 나옵니다. 즉 하악골이 완전히 녹은 것이 아니라 cyst에 의해서 공간이 생길것이고, 이곳은 나중에 GBR을 통해서 더욱 완벽한 치료가 될것입니다. GBR에 대해서는 다음회에 다루겠습니다.

이번케이스는 우리가 단순히 양쪽의 치아갯수가 적은 missing teeth일 때 꼭 방사선을 촬영해야 한다는것과, 이와 같이 치아가 숨어있는 케이스를 놓아두었을 때, 이것이 cyst로 더욱 발전하여 종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 꼭 방사선 확인후에 발치를 권장드립니다.👍